

한국 축구, 러시아에서 다시 난다

내달 14일 러시아월드컵

스웨덴 · 멕시코 · 독일과 D조에서 경합... 16강 목표
스웨덴과의 경기서 이겨야 손흥민, 팬들 기대 큰 선수로 타국 경기 보는 재미도 '썰썰'

4년에 한 번 찾아오는 지구촌 최대의 축구 축전인 국제축구연맹(FIFA) 2018 러시아 월드컵이 다음달 14일 러시아에서 성대 한 막을 올린다.

아시아 국가로는 최초로 9회 연속 본선 무대를 밟은 한국은 신태용 감독 체제로 꿈의 무대에 도전장을 던졌다. 2010년 남아공 대회(허정무), 2014년 브라질 대회(홍명보)에 이어 3개 대회 연속 국내 지도자가 지휘봉을 잡았다.

월드컵을 앞두고 전 감독 경질 후 사령탑에 오른 신 감독은 가슴 한구석에 맺힌 월드컵의 한을 풀어낼 기회를 잡았다. 신 감독은 선수 시절 스타 플레이어로 명성을 떨쳤지만 월드컵과는 연을 맺지 못했다.

한국은 스웨덴, 멕시코, 독일과 D조에서 경합을 벌인다. 다음달 18일 오후 9시(한국시간) 니즈니노브고로드에서 스웨덴과 1차전을 치른 뒤 23일 지정 로스토프나도누로 자리를 옮겨 멕시코를 상대한다. 마지막 독일전은 27일 오후 11시 카잔에서 열린다. TV로 시청하기엔 더할 나위 없는 시간대다.

언제나 그랬듯 1차 목표는 16강에 진출이지만 상대들이 만만치 않다. 스웨덴과 멕시코 모두 객관적인 전력에서 우리를 앞선다. 2014년 브라질대회 우승팀이자 FIFA 랭킹 1위를 유지 중인 독일은 따로 설명이 필요 없을 정도다.

16강행을 위해서는 스웨덴과의 첫 경기를 반드시 잡아야 한다. 스웨덴전 승리를 흐름을 타고, 남은 두 경기에서 16강 진출을 타진하는 것이 최상의 시나리오다.

신 감독은 14일 오전 10시 서울시청에서 러시아월드컵에 함께 할 선수 명단을 발표했다.

팬들에게 가장 많은 기대를 받고 있는 이는 역시 손흥민이다. 4년 전 브라질에서

쓰러진 실패를 경험한 손흥민에게는 두 번째 월드컵이다. 손흥민은 최근 FIFA와의 인터뷰에서 "스웨덴은 우리보다 낫다. 멕시코도 우리보다 잘한다. 독일 역시 물론 그렇다"면서도 "누구도 패배를 원하진 않는다. 축구는 11대 11로 하는 경기다. 실력차는 있지만 정신적으로는 누구보다 잘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월드컵인 만큼 한국 뿐 아니라 다른 나라의 경기를 보는 재미도 쏠쏠하다. 크리 스티아누 호날두로 대표되는 포르투갈과 명예회복을 노리는 스페인, '다크호스' 벨기에와 축구 종가 '잉글랜드'는 조별리그부터 혈투를 벌인다. 우리의 영원한 라이벌 일본은 폴란드, 세네갈, 콜롬비아와 H조에 묶였다.

/뉴시스



'르브론 썩썩' 보스턴 클리블랜드에 압승

NBA 동부 콘퍼런스 결승 1차전서

108-83으로... 지난 시즌 설욕 발판 마련

보스턴 셀틱스가 '킹' 르브론 제임스를 봉쇄하는데 성공하며 미국프로농구(NBA) 동부 콘퍼런스 결승 1차전을 승리로 장식했다.

보스턴은 14일 미국 매사추세츠주 보스턴 TD가든에서 열린 2017~2018 NBA 플레이오프 동부지구 결승(7전4선승제) 클리블랜드 캐벌리어스와 1차전에서 108-83으로 승리했다.

지난 시즌 콘퍼런스 결승에서 클리블랜드에 1승 4패로 무릎 꿇었던 보스턴은 서전을 승리로 장식하며 설욕의 발판을 마련했다.

보스턴은 경기 초반부터 주도권을 쥐기 시작해 공수에서 클리블랜드를 압도했다. 1쿼터를 36-18로 크게 앞선 보스턴은 2쿼터 클리블랜드의 득점을 17점을 묶으며 전반을 61-35로 마쳤다.

전반 27점차는 르브론 제임스의 커리어 플레이오프 최고 점수 차다. 제임스는 전반에 7점에 묶이는 등 존재감을 나타 내지 못했다.

3쿼터 클리블랜드가 추격에 나서긴 했지만 10점 차 이내로 좁히지는 못했다. 오히려 4쿼터 시작과 함께 보스턴이 공격에 다시 불을 지폈다. 4쿼터 시작 5분여 동안 보스턴은 20-6으로 달아났다.

클리블랜드는 제임스 등 주전들을 벤치로 불러들이며 사실상 경기를 포기했다. 보스턴도 벤치 멤버들을 가용하며 2차전을 대비했다.

제임스 브라운(23점 8리바운드), 마커스 모리스(21점 10리바운드), 알 호포드(20점 4리바운드 6어시스트)가 20점 이상을 올렸다. 플레이오프 들어 더욱 뛰어난 활약을 펼치고 있는 루키 제이슨 테이텀(16점 6리바운드)도 승리에 일조했다.

무엇보다 플레이오프 들어 첫 선발로 나선 모리스는 제임스 봉쇄라는 특명을 완벽하게 수행했다. 모리스는 콘퍼런스 결승을 앞두고 자신이 리그에서 제임스를 막을 수 있는 몇 안되는 선수라고 말했다. 1차전에서 그 말이 거짓이 아님을 증명했다.

제임스는 이날 야투 16개를 시도해 5개를 넣는데 그치며 15점에 묶였다. 앞선 플레이오프 11경기 평균 35점을 웃돌던 득점이 반 토막 났다.

어시스트 9개를 기록하며 동료들에게 기회를 제공하려 했지만 실책 7개를 범해 효율성 측면에서 바닥이었다.

클리블랜드는 3점슛 26개를 던져 47개밖에 넣지 못하는 등 외곽 난초까지 겹치면서 도저히 이길 수 없는 경기를 했다.

플레이오프 들어 홈에서 치른 8경기를 모두 승리하는 등 '안방불패'를 이어가고 있는 보스턴은 2차전 승리에 도전한다. /뉴시스

신태용호, 월드컵 대표팀 명단 발표

손흥민 · 이청용 포함 총 28명... 평가전 거쳐 23명 최종 결정

이승우, 첫 발탁... 김민재 · 염기훈은 부상으로 엔트리 제외

신태용 감독이 14일 서울시청 다목적홀에서 국제축구연맹(FIFA) 2018 러시아 월드컵에 참가할 한국 대표팀 명단을 밝혔다.

손흥민(토트넘), 기성용(스완지시티)이 예상대로 대표팀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이들 외에 권창훈(디종), 황희찬(잘츠부르크), 장현수(FC도쿄) 등 대표팀 핵심 멤버들도 이번 없이 엔트리에 포함됐다.

최근 리그 경기에서 부상을 당한 김민재(전북 현대)와 염기훈(수원 삼성)은 결국 엔트리에서 빠졌다. 오반석(제주 유나이티드), 문선민(인천)이 월드컵에 참가할 기회를 잡았다.

대표팀 명단에서 가장 눈에 띄는 선수는 이승우다. 세리에A 베로나에서 뛰고 있는 이승우는 6일 AC밀란을 상대로 이탈리아 프로무대 데뷔골을 터뜨리는 등 최근 인상적인 활약을 펼쳤다. 13일 우디네세전에 선발 출장에 풀타임 활약했다. 이승우는 청소년대표팀에서 태극마크를 달았지만 성인 대표팀 발탁은 이번이 처음이다.

월드컵 최종 엔트리는 23명이지만 신태용 감독은 부상 등 변수를 고려해 추가로 5명을 뽑았다. 이청용(크리스털 팰리스)도 대표팀에 승선했다. 이청용 대표팀 발탁 여부는 관심사 중 하나였다. 이청용은 소속팀에서 경기 출장 기회가 적어 경기력에 대한 의문이 제기됐다. 후반기 들어 대

부분의 경기를 벤치에서 지켜봤다. 이청용은 지난달 29일 레스터시티와의 원정경기에서 후반 종료 4분 전 교체 투입돼 그라운드를 밟았지만 공격 포인트를 올리지는 못했다.

신태용 감독은 "이청용은 분명 잠재력이 많은 선수다. 우리가 가고자 하는 포메이션에 있어 상당히 필요한 선수"라고 말했다. 최종 명단에 포함할지에 대해서는 신중한 반응을 보였다. "8월1일까지 지켜보겠다. 지금은 러시아에 간다고 100% 보장할 수 없다"고 밝혔다.

◇2018 러시아월드컵 출전 명단(28명)

▲GK= 김승규(비셀고베), 김진현(세레소오사카), 조현우(대구FC)

▲DF= 김영권(광저우 에버그린데), 장현수(FC도쿄), 정승현(사간도스), 윤영선(성남), 권경원(텐진 관잔), 오반석(제주 유나이티드), 김진수(전북 현대), 김민우(상주 상무), 박주호(울산 현대), 홍철(상주 상무), 고요한(FC 서울), 이용(전북 현대)

▲MF= 기성용(스완지시티), 정우영(빗셀고베), 권창훈(디종), 주세종(아산 무궁화), 구자철(아우크스부르크), 이재성(전북현대), 이승우(베로나), 문선민(인천), 이청용(크리스털 팰리스)

▲FW= 김신욱(전북현대), 손흥민(토트넘), 황희찬(잘츠부르크), 이근호(강원)

/뉴시스



신태용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이 14일 서울시청에서 2018 러시아월드컵 최종명단을 발표하고 있다.

구독 · 광고문의 288-9700



대한민국 치즈의 수도

임실 치즈



벨기에 출신 지정된 신부(Didier l'Serstevens)가 국내 최초로 개발 보급한 한국 치즈산업의 원조 임실치즈. 신선한 원유와 40년 이상의 가공기술력으로 만든 임실치즈는 맛이 고소하고 담백하여 어린이, 노약자의 영양간식으로 매우 좋습니다.